

■ 오영훈 지사 취임 2주년 간담회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통해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 갖출 것”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1월 주민투표 필요 강조
제2공항은 차분히 대책 마련... 갈등 최소화 집중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후반기에서의 성공적인 공약 추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전반기 공약 사안에 대한 성과와 후반기에 해소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지난 2년간의 민선 8기 전반기의 제주도정의 성과와 변화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과거 수도권 기업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 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고, 기업이 민간의 영역이지는 지속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심, 혁신을 주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이든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수립이든 민간 참여 없이는 안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오영훈 지사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2년 하반기 제주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육성·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하반기 도정 주요 핵심과제로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에너지 대전환은 지난 5월 1일 정책 발표했는데, 생존을 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길을 조금 먼저 걷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여건이 갖춰져 있고,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해 늦출 수 없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또 “디지털 대전환은 여러 구상중이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시가총액 상위권 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익 창출하는지도 봐야 한다. 2030 MZ세대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대 소비성향과 글로벌 트렌드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의 특징은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분권과 분산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에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기초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 주민투표와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오 지사는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를 숙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계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이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또 심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들이 1차로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오 지사는 제주지역 인구 소멸 위기 속 인구정책 발굴 계획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날 민선 8기 후반기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을,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태윤기자 lly9456@ihalla.com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 선출을 위해 도의원들이 1일 투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돌입

이상봉 의원 의장으로 선출... 여야 원 구성도 마무리

제12대 제주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3선인 이상봉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에 이상봉 의원을, 부의장으로는 민주당 재선 양병우 의원, 국민의힘 재선 강중룡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장은 전체 45표 중 43표를 얻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이상봉 의원을 의장으로 합의 추대한 바 있다.

이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12대 도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지금 기쁨과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제주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지역 외식업체

폐업률은 20.9%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예금은행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은 올해 4월 0.84%로, 작년 동기 0.48%에 비해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민생경제 침체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제2공항 갈등 중재자 역할, 인구 유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의장단이 선출된대 이어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 배분은 총 6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환경도시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5개의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

국민의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예결위원장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정은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호형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현길호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민구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영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을 고태민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는 오승식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강성의 의원과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공사중지 명령... 4면 / 빛 못갠 자영업자 급증... 6면

한솔도시락 좋은재료·좋은가격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with 타르타르소스
조미김, 생수

매화



with 타르타르소스
조미김, 생수

개나리



with 양식소스
조미김, 생수

진달래

회의, 세미나, 야외행사, 피크닉 등 각종 모임에 **단체주문** 받습니다.

한솔 제주한라병원점

☎ 064)742-5425 (신광초등학교 옆)

※ 점심시간에 미리 전화 주문해 주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환영



신광초등학교
한솔 제주한라병원
연동대일아파트
롯데시티호텔제주
신광사거리